

장충남 남해군수, "꿈임없는 행정 혁신 도모하겠다"

☎ 박영준 기자 | Ⓞ 승인 2023.01.11 11:50

남해군,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선정
행안부 특교세 인센티브 10억원 수상
협업·정책효율성 제고 등 높은 평가
도내 군부 기초지자체 중 유일한 성과



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 선정식 [사진=남해군]

[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영준 기자]남해군이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된 ‘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’에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았다.

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‘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·추진계획’은 2022년 7월 27일 새정부 국정과제로 발표됐으며,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통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.

이상민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는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정책방향 설명과 함께 새정부 출범 이후 구조개혁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힘쓴 자치단체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.

광역자치단체로는 대구·부산·경북·경남이 참석했으며, 기초자치단체로는 남해군과 경기 수원, 경남 양산, 경기 포천, 전북 완주, 서울 도봉구, 인천 서구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. 아울러, 전국 96개 지방공공기관(공사·공단 등)이 함께 했다.

남해군은 인접 지자체와 공동마케팅을 추진해 중복사업을 최소화하고, 연계사업을 발굴하는데 큰 성과를 올렸다는 평을 받았다.

또한, 남해군 행정과 관광문화재단 간 협업이 우수 사례로 꼽혔으며,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사업을 종료하면서 기관 내 ‘기능조정’을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사업비 절감과 정책효율성 제고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.

남해군에서 제출한 4건의 사례가 ‘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및 추진계획’ 우수사례로 평가 받으면서, 남해군은 특교세 인센티브 10억원을 받게 됐다.

장충남 남해군수는 “이번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 사례에 남해군이 선정돼,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”며, “군청 내 부서 간 칸막이 제거는 물론 유관기관 간, 인접 지역 간 협업을 통해 끊임없이 행정 혁신을 도모하겠다”고 전했다.

저작권자 ©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박영준 기자